

2015 / 09 / 21 (MON)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1%가량 상승.
美 연준 기준금리 동결 소식과 중국 증시
안정이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하며 상승세.

인터넷과 IT서비스 업종은 강보합세를 나타
낸 반면 게임주와 소프트웨어 업종이 3%
이상 급등하며 지수 상승 견인.

수급측면에서는 외인의 매수세로 한국정보
인증, 위메이드, 더존비즈온, 코나아이, 인
피니트헬스케어, 웹젠 강세.

종목별로는 더블유게임즈가 상장예비심사
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소셜 카지노 사업을
전개 중인 다다소프트를 자회사로 보유 중
인 파티게임즈가 20.5% 상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한국정보인증	38 억	SK	-104 억
삼성에스디에	32 억	다음카카오	-36 억
컴투스	28 억	안랩	-22 억
코나아이	26 억	네오위즈게임	-5 억
NHN엔터	17 억	액토즈소프트	-2 억
아프리카TV	15 억	한국전자인증	-2 억
위메이드	14 억	다날	-2 억
NAVER	13 억	한국사이버결	-1 억
다우기술	12 억	KT뮤직	-1 억
더존비즈온	8 억	파티게임즈	-1 억
유비벨록스	8 억	에스24	-1 억
웹젠	7 억	신세계 I&C	-1 억
처음앤씨	7 억	SGA	-1 억
인피니트헬스	6 억	MDS테크	-1 억
게임빌	5 억	선데이토즈	0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컴투스	41 억	SK	-186 억
NHN엔터	38 억	다음카카오	-36 억
삼성에스디에	15 억	이니텍	-29 억
NAVER	13 억	위메이드	-21 억
민앤지	11 억	코나아이	-12 억
엔씨소프트	9 억	한국정보인증	-12 억
엔텔스	8 억	레드비씨	-5 억
신세계 I&C	6 억	액토즈소프트	-5 억
사람인에이치	5 억	KG이니시스	-4 억
유비벨록스	3 억	벅스	-4 억
KT뮤직	3 억	브리지텍	-4 억
크레듀	2 억	다우기술	-4 억
슈프리마	2 억	한글과컴퓨터	-4 억
KTH	1 억	MDS테크	-3 억
더존비즈온	1 억	드래곤플라이	-3 억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53.39	0.7%	-16.0%	252 억	68 억
(코) 인터넷	20,710.62	0.7%	8.6%	-25 억	-30 억
(코) IT S/W&SVC	2,266.78	2.6%	13.4%	131 억	-87 억
(코) 소프트웨어	336.25	3.2%	37.1%	89 억	-65 억

인터넷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509,000	-0.2%	-28.5%	13 억	13 억
다음카카오	125,500	0.3%	1.5%	-36 억	-36 억
한국사이버결제	35,150	-1.0%	31.6%	-1 억	-2 억
KG이니시스	21,200	0.5%	18.4%	5 억	-4 억
KG모빌리언스	15,700	1.9%	7.9%	0 억	1 억
사람인에이치알	24,850	6.0%	121.9%	4 억	5 억
KTH	9,800	1.9%	28.1%	0 억	1 억
아프리카TV	33,950	0.9%	26.9%	15 억	0 억
SK컴즈	6,650	-1.9%	0.0%	0 억	-
KT뮤직	5,600	1.6%	3.9%	-1 억	3 억
다날	10,300	1.5%	27.2%	-2 억	-
에스24	12,800	-0.8%	83.6%	-1 억	0 억

IT서비스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85,500	0.4%	-2.7%	32 억	15 억
SK	253,500	-0.2%	18.7%	-104 억	-186 억
다우기술	30,300	1.0%	153.6%	12 억	-4 억
포스코 ICT	5,480	0.7%	3.4%	3 억	-1 억
신세계 I&C	144,000	5.5%	28.6%	-1 억	6 억
동부	7,000	0.0%	178.9%	0 억	0 억

게임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192,500	2.1%	5.8%	3 억	9 억
컴투스	110,000	7.1%	-8.7%	28 억	41 억
NHN엔터테인먼트	64,200	2.1%	-24.1%	17 억	38 억
웹젠	30,500	3.0%	5.0%	7 억	0 억
위메이드	46,800	7.2%	23.8%	14 억	-21 억
선데이토즈	16,100	1.3%	-6.4%	0 억	-1 억
액토즈소프트	41,200	7.3%	23.0%	-2 억	-5 억
게임빌	70,000	5.1%	-42.0%	5 억	-1 억
네오위즈게임즈	19,200	1.9%	-15.6%	-5 억	0 억
넥슨지티	12,000	3.0%	-5.9%	0 억	0 억
데브시스템즈	28,700	2.9%	-39.9%	1 억	-
조이시티	23,350	1.7%	15.6%	1 억	1 억
파티게임즈	55,300	20.5%	112.3%	-1 억	1 억
조이맥스	19,050	-0.8%	-30.2%	2 억	-3 억
한빛소프트	7,160	2.9%	23.7%	0 억	-
와이드온라인	6,490	2.4%	40.5%	1 억	0 억

소프트웨어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43,950	5.9%	30.4%	26 억	-12 억
더존비즈온	20,200	6.0%	117.2%	8 억	1 억
한글과컴퓨터	23,850	1.9%	18.1%	5 억	-4 억
골프존	87,800	0.0%	247.7%	0 억	0 억
안랩	43,900	-2.0%	21.9%	-22 억	-1 억
한국정보인증	18,500	8.8%	432.4%	38 억	-12 억
슈프리마	23,800	-1.2%	-6.5%	0 억	2 억
갤럭시아컴즈	6,590	4.8%	143.2%	0 억	-1 억
지트리비엔티	11,900	3.5%	244.9%	2 억	0 억
MDS테크	25,650	1.2%	23.9%	-1 억	-3 억
오상자이엘	13,000	7.4%	-2.3%	0 억	0 억
인피니트헬스케어	9,230	4.3%	27.5%	6 억	-
케이사인	3,410	2.2%	38.6%	0 억	-1 억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43.09	0.8%	-2.6%
MSCI Internet	172.65	0.8%	13.0%
MSCI IT Services	120.53	0.7%	2.4%
MSCI Software	160.86	0.7%	-1.7%

Internet

close	1D	YTD	
Google	665.52	0.1%	25.4%
Facebook	93.45	0.6%	19.8%
Tencent	135.40	3.2%	20.4%
Baidu	150.35	6.3%	-34.0%
Yahoo	31.40	1.2%	-37.8%
LinkedIn	197.65	1.1%	-14.0%
Twitter	27.75	2.1%	-22.6%
Weibo	12.05	6.1%	-15.4%
SINA	40.18	6.9%	7.4%

IT Services

close	1D	YTD	
IBM	148.41	0.6%	-7.5%
TCS	2,550.35	0.1%	-0.3%
Accenture	98.96	0.7%	10.8%
HP	28.47	5.0%	-29.1%
Infosys	1,101.65	0.2%	11.7%
Wipro	580.55	1.9%	4.6%
NTT Data	6,060	3.2%	34.2%
Fujitsu	594.50	2.4%	-7.7%
CSC	62.75	0.5%	-0.5%

Games

close	1D	YTD	
Nintendo	21,645	-4.3%	71.7%
EA	70.28	1.3%	49.5%
Blizzard	30.52	2.4%	51.5%
NEXON	1,627	-2.6%	44.6%
NAMCO	2,880	-2.3%	12.3%
King	13.66	1.6%	-11.1%
Konami	2,591	-0.8%	16.7%
Square Enix	3,050	-4.2%	21.6%
GungHo	374	-2.3%	-15.2%
DeNA	2,304	-2.7%	59.3%
Sega	1,334	4.1%	-14.3%
Take-Two	29.48	0.0%	5.2%
Zynga	2.51	-0.4%	-5.6%
Ubisoft	17.05	4.9%	12.4%
Gree	574	1.2%	-20.7%
Changyou	19.50	3.6%	-28.7%

Software

close	1D	YTD	
Microsoft	44.30	0.7%	-4.6%
Oracle	38.27	0.7%	-14.9%
SAP	66.97	0.1%	-3.8%
EMC	24.86	1.3%	-16.4%
Salesforce	71.88	0.9%	21.2%
Adobe	80.53	1.3%	10.8%
Vmware	80.96	0.6%	-1.9%
Intuit	89.47	0.5%	-3.0%
Syantec	19.95	0.2%	-22.2%
CA	28.22	0.4%	-7.3%
Citrix	72.97	1.0%	14.4%
Autodesk	46.90	0.6%	-21.9%
Synopsys	48.13	0.2%	10.7%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KT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확정, 은행, 증권, 유통, PG 등 망라

KT컨소시엄이 컨소시엄 구성을 마무리 함. 컨소시엄에는 KT와 우리은행을 비롯해 현대증권, 한화생명, GS리테일, KGI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포스코ICT, 이지웰페어, 압(YAP), 8퍼센트, 인포바인 등 금융과 결제, 유통, ICT 분야의 주요 업체들이 상당수 참여. 이들 회사는 지난 17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참여 주주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CT를 토대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뜻을 함께하기로 함.

최근 교보생명이 불참 결정을 내렸으나, KT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의 참여와는 무관하게 지난 7월초부터 우리은행 등과 사업모델 개발 등 인가신청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힘. KT컨소시엄은 국내 최고 수준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용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이를 통해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한 자릿수 은행권 저금리와 제2금융권 고금리로 양극화돼 있는 국내 신용대출 시장의 문제점 해소를 지원할 방침.

우리은행의 국내 최초 모바일뱅크인 '위비뱅크'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은행으로서의 기본 틀을 구축하고, 신용공여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전략. 또한 현대증권의 투자자산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개인별 자산현황 및 투자니즈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예정.

이 밖에도 편의점, PG, 복지포인트 등 이종 산업 및 서비스간 융합을 추진해 이용자의 금융생활 편의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 오픈형 금융플랫폼 구축으로 쇼핑/결제/포인트적립/금융상품 금리 혜택이 원스톱으로 지원되는 신개념의 서비스도 구상 중.

KT컨소시엄 관계자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혁신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컨소시엄 참여사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전까지 ICT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과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파티게임즈	20.5%	주가급등

News & Issue

소셜 카지노게임 수혜주? 파티게임즈 주가 20.45% 급등

파티게임즈의 주가가 급등세. 더블유게임즈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소셜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파티게임즈 급등세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 우선 미국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며 게임주가 3% 이상 급등.

여기에 파티게임즈는 소셜 카지노 관련주로 주목. 지난 9월 11일 소셜 카지노 게임사 더블유게임즈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상장 준비에 돌입. 페이스북 및 모바일 소셜 카지노에 진출해 매출 713억 원, 영업이익 293억 원을 기록한 더블유게임즈는 2015년 하반기 IPO 시장 최대어로 평가되고 있음.

그리고 파티게임즈는 더블유게임즈와 같은 분야인 소셜 카지노 사업을 전개 중인 다다소프트를 자회사로 보유 중. 더블유게임즈의 IPO가 임박하면서 다다소프트를 보유한 파티게임즈도 소셜 카지노 게임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위메이드	7.2%	실적전망

News & Issue

위메이드, '열혈전기' 中 흥행, 3Q 2년만 흑자전환 전망

위메이드의 3분기 실적이 '열혈전기'의 중국 흥행으로 2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고 4분기에도 신규 모바일 게임 실적 반영으로 예상치를 상회할 전망. 3분기 매출은 온라인 게임 매출 감소에도 열혈전기의 로열티 수익이 반영돼 전분기보다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영업손익은 지속적인 인건비 비중 감소까지 더해져 2분기 76억원 적자에서 흑자전환이 예상됨.

중국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열혈전기는 앱스토어 기준 매출 순위 2위권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서버수는 안드로이드·iOS 합산 기준 지난달 28일 310개에서 이달 1일 336개, 7일 373개, 17일 414개로 증가세. 서버수 증가가 사용자 유입을 의미하는 만큼 사용자 증가와 충성도 제고에 따른 가입자 당평균판매가격(ARPU) 증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열혈전기 흥행에도 회사 주가는 기대감 반영 이전 수준까지 하락. 이는 열혈전기 흥행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됨.

서버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흥행구간은 시장 우려보다 월등히 길어질 것이며 '소울앤스톤' 등 모바일 게임과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는 온라인게임 '로스트사가' 출시도 연내 가능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글로벌	Industry		최근이슈

News & Issue

글로벌 e스포츠시장, 고성장, 2018년 8,890억원, 연평균 40.9% ↑ 전망

오는 2018년 '리그오브레전드'(LoL), '도타2' 등이 이끌고 있는 글로벌 e스포츠시장이 7.65억달러(약 8,890억원) 규모를 나타낼 전망이다. 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이 40.9%에 달할 것이란 예상. 이는 e스포츠 팬층이 갈수록 두터워지고 이에 따라 관련 상품과 티켓 판매, 매체 방영권, 광고시장 등이 함께 성장한 결과로 분석됨.

뉴주가 지난 17일(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Esports Q3 Report)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e스포츠시장 규모는 1.94억달러(약 2,250억원)로 조사됨. 전년대비 24.8% 성장한 수치. 올해 e스포츠시장 규모 추정치는 2.78억달러(약 3,230억원). 2014년 대비 43.1% 성장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성장률은 2018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CAGR이 40.9%.

오는 2018년에는 e스포츠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만 3.37억(약 3,9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전체 e스포츠시장 전체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 트위치 등을 통해 e스포츠 게임영상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인기를 얻으면서 광고시장도 덩달아 고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기준 전 세계 e스포츠팬(한달에 한번 이상 e스포츠 시청)은 9,000만명. 주요 지역별로는 중국에 5390만명, 북미에 1850만명, 유럽에 1680만명의 이용자 규모를 나타냄.

올해 e스포츠팬 규모는 전년대비 29.3% 증가한 1.16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는 도타2를 기준으로 e스포츠 전반의 팬층을 조사한 수치. 오는 2018년 전 세계 e스포츠팬은 1.65억명으로 예상. 2014년부터 CAGR 16.5%를 기록한 결과.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14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프로 e스포츠 시장 규모는 612억원으로 추정. 프로배구 600억원(2014 KOVA) 규모와 비슷한 수준. 아마추어 e스포츠 시장은 제외한 수치.

소프트웨어 Softwar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한국정보인	8.8%	최근이슈

News & Issue

한국정보인증, 삼성페이 지문인증 서버에 코모도 SSL 적용

17일,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페이의 FIDO 기반 지문인증 서버에 COMODO(코모도) SSL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인증은 글로벌 인증기관 코모도의 국내 총판 사업자. 지문, 홍채 등 개인의 고유정보는 보안성이 매우 높지만 그만큼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 따라서 핀테크 시대를 맞아 SSL 기반의 서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글로벌 인증기관 코모도의 국내 총판인 한국정보인증은 현재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기존 RSA 방식이 아닌 ECC 방식의 SSL 인증서를 도입, 빠른 속도로 암호화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 SSL 기반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같은 중요한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권과 포털 사이트 로그인 과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28조에 따라 소핑몰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서버는 SSL 기반의 암호화 보안 조치를 해야 함. 최근 들어 소셜 네트워크 및 비즈니스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적용이 확산되는 추세. 그러나 한편으로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조치는 미흡한 편. 이에 코모도 SSL 인증서는 중소기업 사업자들을 위해 가격부담을 낮춰 판매하고 있음. 코모도 SSL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 코모도 총판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음.

정병현 한국정보인증 SSL팀장은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코모도 SSL 인증서는 CA/브라우저 포럼(Browser Forum) 규정에 의한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시스템을 제공하며, 서버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인증서를 공급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에 따른 코모도 SSL 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의 바이오인증 서비스에 최적화된 보안을 제공하는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언급.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9월 21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9월 2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9월 2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